

고은 불교대하소설



133

규 환지옥은 이름 그대로 부르짖고 소리치는 지옥인가. 하지만 그 지옥의 사나운 형리는 어떤 부르짖음도 들어먹고 있으므로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뜨거운 구리즙이 입과 목구멍을 쉬지않고 들어와 식도로 내려가면서 타들어가고 있으므로 어떤 소리도 질러낼 수 없다. 그렇다면 규환지옥은 소리없는 아우성, 소리없는 절규와 비명의 고통으로 이루어진 지옥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규환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주련(柱聯) 한 구절은 그런 뜻을 내비치기에 알맞는 것 같다.

이곳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규환지옥에는 끓는 구리즙을 끓여내어 삼켜야 하는 형벌 말고도 지옥에서는 중생의 몸통이 가마 속에 내던져져 그 끓는 물에 삶아지는 고통, 풀 한 방울 없이 뜨겁게 달구어진 냄비속에 넣어져 볶기는 고통을 받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곳에서도 부르짖을 수 없고 소리 지를 수 없이는 마찬가지였다.

“어찌란 말인가, 어찌란 말인가” 라고 파우보살이 마치 그런 고통을 받는 쪽을 대신하는 것처럼 울조했으나 파우보살의 입에서도 그것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노살의 입도 그들과 똑같이 소리가 없는 고통을 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규환지옥의 후문 쪽 부지옥에는 술에 물을 타서 팔아 부자가 된 어느 노파가 거기에 떨어져 끓는 구리즙에 끓는 쇠를 섞은 것을 꿀꺽꿀꺽 삼키는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 노파를 보자마자 합두보살은 불연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 노파의 어느 정생에는 부처님 당시의 죽림정사 사찰의 사연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다. “희한한 일입니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짧은 합두보살의 입밖으로 그 중얼거리는 소리는 나올 수 없었다.

왕사성 죽림정사 사찰이었다. 어떤 장자(長者-富豪)가 있는데 이웃 나라의 빼어난 미모의 처녀와 혼인한 뒤로 아이를 뱌다.

장례이고 그 다음이 토장(土葬) 수장(水葬)이었다. 가장 낮은 신분은 장례는 풍장이었다.

어 머니의 배를 갈라내고서야 태어난 아이는 아이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니라 노인이었다. 그리고 머리도 백발이었고 허리도 구부정하였다.

그런 아내와 아이는 착척 말도 잘하였다. 이 세상을 살 것 살아본 사람의 능청스러움 그대로였다.

그 늙은 아이가 말하였다. 제 아우들과 집사와 노복들에게도 무엇이나 구애받을

지옥 순례 ③

“희한한 일입니다”

합두는 규환부지옥 노파를 본 순간 죽림정사 시절을 떠올렸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임신한 아이는 끝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그런 몸으로 다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잘 나올 수 있었다. 그 아이에 이어 아홉이나 더 낳기까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댄 처음에 임신한 채 만삭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머니의 몸 안에서 녹아버리기도 했다.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아기는 제 아우들이 나올 때마다 지궁의 왼쪽과 오른쪽 옆으로 피해지면서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 자신의 운명 그대로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몸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뜻은 아이 때문에 배와 자궁의 통증이 점점 커져갔다. 장자는 아홉명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행복의 다른 한편에서 그의 아내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였다.

그는 마가다국의 비싼 약을 지어오기도 하고 바라문계급의 명의를 모셔다가 아내를 진찰하거나 치료하기도 했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

아내는 어느날 몹시 격렬한 통증 끝에 죽음이 가까워 온 것을 예감하였다. 남편을 불렀다.

“제 몸 안에는 오래전에 낳지 못한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 배를 갈라 그 아이를 꺼내어 양모를 두어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뒤 아내는 며칠을 더 살아보다가 눈을 감았다.

장자는 술품에 잠길 사이도 없이 아내의 유언대로 집안에 대령하고 있던 늙은 의사를 시켜 아내 시신의 배를 갈라 어린 아이를 꺼낼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아내의 시체를 화장하였다. 그곳 풍습으로는 화장이 가장 호화로운

것이 없는 듯이.

“그대들은 알아 두게나... 나는 과거의 생에서 나쁜 말로 수행자를 욕한 업보로 이렇게 60년동안이나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로 고통을 받았네.”

바로 그 늙은 아이한테 부처님 일행이 찾아왔다.

“너는 제바(提婆)비구가 아니더냐? 늙은 아이가 허리를 구부린 채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두번째도 세번째도 부처님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똑같았다.

그때였다.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다.

“이 늙은 아이를 어떻게 아십니까, 스승이시여.”

부처님은 모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이의 내력을 알려주었다.



들 것이다.” 이 말을 한 뒤 그 유나승은 자살하였다. 자살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였다. 바로 그 유나승이 지옥고통 끝에 사바세계의 여자 몸안에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 늙은 아이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 교단의 수행으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연을 가지게 된 노파가 혹은 지옥에서 규환지옥으로 이송되어 살고 있을 때가 바로 불이보살 일행의 순례때와 일치되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대규환(大規煥)지옥으로 옮겨졌다. 그들 자신의 뜻이었는지 지옥계의 자동적인 이동장치 때문이었는지 그런 것

심

지어 마치 면도칼이나 식도로 혀를 자디잘게 썰어내는 고통도 있는데 그런 칼날에도 불길기 남아있어 썰어진 혀가 지직지직 타들어갔다. 이런 형벌은 거짓말을 많이 한 죄업 때문이었다.

합두보살이 불이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말을 할 수 없거니와 어떤 말을 들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대규환지옥인지 모른다.

네 보살들까지도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보살들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었다. 보살의 첫 걸음은 응당 중생 그 자체와의 일체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까지의 지옥 다섯군

체 모든 말을 금지당한 뒤 그 말 한 마디만이 남아서 나오는 것처럼 썩! 소리라도 내기에 충분한 힘으로 열렸다.

“오지 말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살들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벌써 보살들의 몸도 불의 뜨거움에 익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능력으로 어느 만큼 그 불의 뜨거움을 식힐 만한 찬 기운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실산의 높은 곳에서 햇빛의 뜨거움 가운데 켈게쳐졌다가 바위 밑의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무릎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 때문에 고통을 받는 현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바세계 실산의 낮과 밤 기온 차이는 35도 이상일 때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초열 지옥에서는 그런 추위는 상상할 수도 없다.

아니 실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산의 가장 무서운 추위야 바로 8열지옥에서 직각으로 나 있는 공간에 무한대로 펼쳐있는 8한(八寒)지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추위조차도 이 초열지옥에서는 뜨거운 불꽃에 말라버리는 증기같은 것으로 있다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불이보살은 그가 합두보살과 함께 돈황 일대의 사막 한복판에서 울데 갈데 없이 그 뜨거움 속에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은 사실을 보살의 정생 기억 속에서 떠올렸다.

또한 그는 <원각경>의 한 마디도 떠올렸다. 그 경전은 ‘지옥천궁(地獄天宮)이란 지옥과 천궁이 모두 정토가 된다’고 하였다.

“지금 나는 하나의 실상이 아니라 변상(變相)을 보고 있음인가? 하나의 그림을 보고 있음인가?”

그림·조향숙

술에 물을 타서 팔아 부자가 된 노파는 끓는 구리즙을 삼키고 있었다

현경(顯景) 전의 머나먼 옛날에 파라나 국에 가십불이 출현하실 때였다. 그때 가십불을 삼키는 비구들이 여럿 한 절을 지내는데 그 비구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아 유나(維那)로 추대하였다.

그 유나승은 운봉으로 수행하는 비구들을 열심히 보살렸다. 그런데 수행 비구들은 도를 얻고 그 유나승은 도를 얻을 기회가 없었다.

그가 화를 냈다. “네놈들만 도를 얻었구나... 그러나 나는 네놈들을 항상 어두운 굴 안에 가둬 공경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아 보아라. 지금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같이 네놈들을 그렇게 만

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미혹의 덩어리였다.

대규환지옥도 이름 그대로 큰 부르짖음 큰 비명을 낼 수 없는 그런 밀봉의 지옥이기도 하다.

불에 실컷 달구어낸 날카로운 쇠바늘로 죄인은 입술과 혀가 꿰뚫려 타들어감으로 어떻게 울부짖을 수도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형리는 불에 달군 쇠집게로 죄인의 혀를 뽑아내는 형벌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렇게 혀를 뽑히고 나뉘는 혀가 바로 돌아나 그 죄인의 고통은 멈추어지는 일이 없었다.

데는 지옥 중에서도 천상에 해당될 만큼 여섯번째의 무서운 지옥에 이르렀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이것이 초열지옥의 문에 내걸린 깃발의 두 마디였다.

이제 보살들은 그들의 말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아주 삼가는 태도가 역력하였다. 그러므로 어쩌다 하게 되는 말은 길지 않고 짧았하였다.

무량보살이 마치 아이처럼 천진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입은 오랫동안 밀봉된



헬기 화물 운송 전문 업체

헬리코리아 는 항상 스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의 건강하신 나날과 하시는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 회향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헬리코리아』는 최신 장비와 20년 이상의 베테랑조종사들이 사찰의 각종불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만전의 준비로 스님들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특히 고산지대 사찰불사에 『헬기』 사용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단축·시간절감 불필요한 인력 해소 등으로 불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사고예방 등 더욱더 효율 있는 불사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 ⊗ 공사현장의 위치 및 『헬기』 이착륙장이 공사비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 불사를 계획하고 계신 스님께서는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출장 방문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헬기비용 산출, 운항허가 등 헬기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

- ◆ 문화재 재·개보수 자재운반
- ◆ 사찰 중·신축시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운송
- ◆ 동절기 생활용품 및 각종 불교 행사시 필요한 불교용품 운송
- ◆ 산불방지·환경보호·인명구조 및 긴급인력 수송

▶ 20여 년간 불교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동참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영업담당이사 이주영 합장
☎(02)565-8056(대) FAX565-8059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오피스텔 903호
☎(02)565-8056(대) FAX 565-8059
대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2-16 ☎(042)633-8900 FAX (042)624-8400